

2021년 12월 10일 (금)

News

예금보험공사,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거래 완료

이코노믹리뷰

예금보험공사, 유진프라이빗에쿼티 등 5개사에게 우리금융지주 주식 9.33%를 각각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총 8,977억원 수령
예보 측은 매각을 통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 8,000억원 중 12조 3,000억원을 회수하는데 성공... 우리금융지주의 사실상 완전민영화 완성

고승범 "빅테크·핀테크 규제 분리 지적 일리 있어"

파이낸셜뉴스

고승범 금융위원장, 빅테크와 핀테크 구분해 규제할 뜻 밝혀... 핀테크에 대한 망분리 규제 부담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중
핀테크사들이 요구해온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마이데이터 영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혀...

은행도 투자할 곳 없다...쌓이는 현금 '딜레마'

데일리안

국내 4대 시중은행, 보유 현금 자산이 올해 들어 10조원 가까이 불어나며 40조원에 육박...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대비 및 적절한 투자처 찾기 못한 모습
신한은행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1조 1,173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67.5% 급증하며 최대를 기록... 대기성 자금 증가로 의도한 것 이상으로 현금 누적 중

인터넷전문은행, 중저신용자 취급 늘렸다

디지털타임스

인터넷전문은행들, 내년부터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대출총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만큼 동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
카카오뱅크, 10월 신용대출 중 4~7% 미만 비중은 50.2%로 전월비 11.2%p, 케이뱅크는 29.9%로 소폭 증가

생보사-빅테크 잇단 동맹...독일까 약일까

서울경제

교보생명·문교·증권 등 교보 3사, 카카오뱅크와 데이터 및 금융 플랫폼 제휴 사업 협력을 위한 포괄적 MOU 체결
교보 및 카카오뱅크 고객 대상 공동 상품 기획, 출시 및 마케팅 공동 추진... 플랫폼 파워 활용은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 혹은 보험사의 빅테크 종속 가능성도...

한화생명 보험금 지급여력 '뚝'...추가 자본확충 나선다

머니투데이

한화생명 3분기 말 기준 RBC비율 약 193.5%... 지난 2분기 말 202%에서 10%p 가까이 하락... 삼성생명과 교보생명하고 비교할 때 격차 존재
사측은 금리상승에 따른 손실이 RBC에 반영되었다는 설명... 업계는 RBC비율 지속 하락에 대한 우려 보여... 고금리 채권까지 발행했는데도 효과가 나지 않았기 때문

'교보·한양證' 국민연금 거래풀서 탈락...다음 차례는? 증권가 긴장

뉴스핌

국민연금, 올 3분기 국내주식 거래 증권사 명단에서 교보증권과 한양증권을 모두 탈락시켜... 올해 들어 잦은 명단 변동으로 중소형 증권사들 긴장 중
카카오페이증권과 현대차증권을 새롭게 편입... 이번 거래증권사 선정에서 해외주식 부문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새롭게 이름 올려...

증권업계 비대면거래 확대, 점포감소 지속...비용효과는 '글쎄'

아시아경제

국내 증권사 점포 수는 지난 3분기 말 기준 947개로 집계... 전년동기대비 4% 감소... 가장 점포가 많은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
대형 증권사들은 지점을 한데 모아 대형 점포로 만드는 거점화 전략 펼치는 중... 증권 비대면 거래 확대도 조직 효율화에 영향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할 수 없습니다.